중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과 '통합적 노화'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동기

본 연구는 중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과 노년기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노년기 사회통합은 고령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소속되는 과정이며, 통합적 노화는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의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생산적 노화는 경제적 활동과 기능적 기여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통합적 노화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의 참여와 소속감을 중요시한다. 지위집단으로서의 중산층은 계급, 소득, 자산, 교육의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판별되며, 중산층 고령자는 이들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된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 고령자는 일-여가를 동일/확장의 관계로 인식하고 일을 통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일이나 여가를 통한 내재적 가치의 실현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 대비는 강조되어 왔지만, 중산층 고령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보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요구된다. 공동체와 여가활동이 사회통합의 주요 수단이 되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적인 사회단체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여가와 진지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이 중요하며, 이러한 여가활동은 정치적 차원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중산층 고령자의 성공적인 노년기 사회통합과 단계적 은퇴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통합적 노화, 중산층, 사회통합, 일-여가 관계, 진지한 여가

조동기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 infowell@dongguk.edu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주로 노인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고, 그에 따라 사회적 대책은 물론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은퇴자들이나 은퇴 예비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적 대비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주된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소일거리가 없거나 외로움과 소외감,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 등도 상당히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통계청, 2013).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적게 받는 중산층 고령자의 경우에는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 크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중산층 고령자들의 여가활동과 그들의 성공적인 노화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고령자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eing)는 자원봉사, 사회참여, 여가활동 등 비경제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이현기, 2009; Butler, 2010; Butler and Gleason, 1985) 일차적으로 경제적 활동과 기능적 기여를 중시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선권, 2013). 노동참여와 봉사활동은 "금전적 대가와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고령자들의 활동"인 생산적 노화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왔다(Ravanera and Fernando, 2001). 그런데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동체 소속감도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Caro, Bass and Chen, 1993). 일과 노동활동이 개인의 생애에서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비경제적 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조건을 탐색하는 경우 비경제적 활동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의 적극적 여가활동

과 사회참여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과 여가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 일-여가 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의 생애를 놓고 볼 때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가치지향이 노동중심에서 여가중심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여가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노년기에 여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여가활동이 노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소일형에 비해 취미문화형 및 사회단체형 여가활동 참여가 높고 여가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도 증가한다(김보현·안영선, 2008; 백종욱·김성오·김미양, 2010; 전영갑·이재근, 2006). 사회계층 변수별 여가문화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여가는 주로 사회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목적이 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관계형, 활동형, 음주형 여가활동 참여가 높다(남은영·최유정, 2008).

노년기의 여가활동에는 또한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의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 학력, 사회계층, 직업, 소득, 지역에 따른 여가활동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박재성, 2012; 신규수, 2012; 윤인진·김상운, 2005). 노년기에서 여가활동은 개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노인들의 여가생활은 여가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나항진, 2002).

노년기에는 여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여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여가 소비를 위한 소득이 감소되면서 여가활동 시간이 감소되는 경향이다. 그런데 중산층 고령자에게 여가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가활동 시간의 전반적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사회통합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경제적 측면보다는 여가활동과 공적 사회단체 참여의 측면을 주목하면서, 중산층 고령자의 성공적인 노화의 조건으로서 '통합적 노화'와 여가활동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일-여가의 관계, 단계적 은퇴와 사회적 통합, 중산층 고령자의 판별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중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 사회통합과 통합적 노화의 특성 분석 등의 순서로 검토한다.

2. 노년기의 여가활동과 사회통합

1) 일과 여가의 관계

통합적 노화의 한 측면으로서 여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여가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과 여가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도의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여가활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Snir and Harpaz, 2002). 그러나 일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가활동을 통해 보상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과 여가 간의 부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Miller and Weis, 1982). 일과 여가의 관계 특성을 분석적으로 보면 몇 가지로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Wilensky(1960)를 토대로 Parker(1983)가 확장시킨 유형화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Haworth and Veal, 2004: 111).

<표 1> 일-여가 간의 관계 특성

관계 특성	Wilensky(1960)	Parker(1971)		Parker(1983)
	가설	개인수준	사회수준	키워드
동일	확산/융합	확장	융합	긍정적, 확장, 일치, 지속, 수렴, 일반화, 통합, 동형화, 확산(spillover)
대조	보상/분절화	반대	양극화	부정적, 상이함, 반대, 보상, 경쟁, 대조, 이형화
분리		중립	견제	중립성, 분리, 분절화

출처: Haworth and Veal(2004): 111 재구성

일과 여가 간의 동일(identity) 관계는 일과 여가가 유사한 구조, 행동, 목적을 가지며 일과 여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로 확산(spill-over) 또는 확장(extension)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의사, 교사 등과 같이 주로 자율성이 높은 업무나 긍정적 노동윤리가 강조되는 직업군에서 흔히 나타난다. 대조 관계는 일의 영역과 여가의 영역이 서로 반대되며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로, 보상(compensation) 또는 대립을 특징으로 하며 광부와 같이 자율성이 낮은 업무나 소외된 노동에서 흔히 나타난다. 분리(separation) 관계는 일과 여가 영역 간에 상호 영향이 없고 분리된 경우로, 중립 또는 분절(segmentation)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일과 여가는 독립적이고 주로 일반적 육체노동이나 사무노동에서 나타난다.

노년기 일-여가 관계는 은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에 대한 은퇴자의 인식은 은퇴 전에 가졌던 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여가에 대한 인식은 은퇴가 강제적이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adburg, 1981). 은퇴는 여러 측면에서 개인들이 공식적인 은퇴 이전부터 관여하고 있던 일과 취미나 애호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2) 여가의 유형과 여가 불평등

여가(leisure)는 시간, 활동성, 경험의 차원을 포함하여 "내적 만족과 즐거움의 경험을 주는 활동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개인 재

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Lobo, 1998: 147). 여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될 수 있는데, 노동과 생계활동을 하고 남는 시간(잔여시간), 자유 시간에 하고자 하는 활동(활동의 자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기능수행), 심리적 또는 정신적 상태(심리적 자유) 등이 주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여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먼저 여가활동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적극적(active) 여가는 사회적 여가(가족, 친구와의 교제), 인지적 여가(취미, 학습,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기타 지적 활동), 신체적 여가(스포츠, 운동)을 포함하고, 소극적(passive) 여가는 주로 가정에서 휴식을 위해 행하는 여가로, 매체이용, 독서 등 기타 여가활동을 포함한다.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로 구분하는 경우(Stebbins, 1992), 진지한(serious) 여가는 애호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추구로, 전문화된 지식 및 경험의 습득과 표출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일상적(casual) 여가는 상대적으로 단기적 활동으로 전문화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놀이, 휴식, 수동적 오락, 감각적 자극 등을 지칭한다.

국민생활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국민들의 '교제 및 여가 시간'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증가하지만 적극적 여가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소극적, 저비용, 건강 중심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여가활용에 대한 대응도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계급과 여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본가-신중산층' 대 '노동자-구중산층'의 구도가 형성되어 자본가-신중산층은 적극적 여가를 추구하는 반면에 노동자-구중산층은 소극적 여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김상운, 2005).

여가의 계급별 불평등은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세기 말부터 근무시간 증가,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 불완정 고용과 실업의 증가, 직업 재구조화의 결과(Lobo, 1998), 노동력이 핵심 전문직,

계약직, 주변직 등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여가 관련 계층화는 3가지 층으로 나타나는데(Roberts, 1997), 여가 소비자는 일에 집중하면서, 고소득, 높은 여가 소비 추구하는 계층이고, 여가 노동자는 저임금, 불안정, 비사회적 노동시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여가 기회는 제한을 받는 계층이다. 주변적 빈곤층은 여가 지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주로 저비용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계층이다. 경제적 자산을 어느 정도 갖춘 중산층 고령자는 주로 여가 소비자에 속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사회통합과 단계적 은퇴

노년기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은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거나 소속되는 과정이다. 노년기 사회통합에 대한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은 고령자들이 능력 감퇴, 활동력 감소, 수동적 역할, 상호작용 감소 등에 따라 노동참여로부터 이탈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노년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삶의 균형을 위해 노년기에도 활동성을 유지하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노동 역할의 상실을 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고 주장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다시 말하면 노동생활의 상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 다른 활동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론은 어떠한 노동대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만족스런 생활을 영위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은 노년기의 적응을 위해 자신의 핵심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고 삶의 지속성을 위해 청년기의 봉사활동을 지속한다고 주장한다. 활동이론과 마찬가지로 지속이론도 노동 생활 이탈자들의 만족스런 생활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자 사회통합에 관한 생애과정(life course) 관점은 대안적 개념틀로서, 연령층화를 전제로 개인적, 구조적 차이를 주목한다. 연령 층화는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타나며, 각 단계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책임이 정해지고, 생물학적 연령, 사회적 연령, 연령 코호트(cohort) 경험 등의 영향을 받는다(Giele and Elder, 1998). 각 단계로의 진입 시기는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변동과도 연관되어 있다.

사회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데 사회통합의 수단은 개인적 특성, 구조적 변동, 공동체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애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식적 통로로는 학교, 직장, 단체 등이 있고 비공식적 통로로는 친구집단, 여가활동, 공동체 등이 있다. 노년기의 사회통합은 이전의 생애주기와 차이를 보인다. 아동기에는 학교와 친구집단이 주요 통로가 되고, 청년기에는 학교와 직장이, 그리고 중년기 직장(성별 분리)이 주요 수단이 되는 반면에, 노년기에는 직장과 일 중심에서 공동체와 여가 중심으로 변화된다.

노년기 사회통합의 차원은 경제적 차원의 노동참여와 포섭(inclusion), 정치적 차원의 단체 참여(participation, 자발적 결사체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와 정당성(legitimacy, 정치집단과 제도가 유권자를 잘 대표하는 정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동체 소속감(belonging)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년기 사회통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이 강조되어 왔다. 노동참여와 봉사활동은 "금전적 대가에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고령자들의 활동"인 '생산적 노화'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왔다(Ravanera and Fernando, 2001).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가족, 친구, 여가, 오락 등의 활동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동체 소속감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Caro, Bass and Chen, 1993). 경제적, 정치적 차원과는 별도로 사회관계와 여가활동 등과 같은 비공식 활동도 고령자들의 사회통합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단계적 은퇴(phased retirement)는 정규 노동활동과 완전 은퇴 사이

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이행기를 가지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은퇴를 말한다. 이는 은퇴 연령이 가까운 근로자들에게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은퇴 이후에 다른 형태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 노동관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관행을 포함한다(AARP, 2006: 3). 단계적 은퇴는 고령자의 경제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강현주, 2014),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적 노동 형태를 동반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과도 관련되어 노년기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자료와 방법

1) 중산층의 판별 기준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빈번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증적인 분석으로 위해서 '중산층'의 의미를 기존의 계층 또는 계급의 개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조동기, 2009). 신광영(2006)은 중산층을 중간계급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도시와 농촌의 쁘띠부르주아지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노동자 계급 가운데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자 계급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신광영, 2006: 26). 홍두승(2005)은 지위집단(status group)의 관점에서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다. 계급(class)의 관점에서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단일 척도로 측정되는 중간계급과는 달리 지위집단으로서의 중산층은 비경제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복합척도로 측정된다(홍두승, 2005: 17).

'중산층'을 경험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홍두승(2005)은 중산층 판별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표 2> 참조), 객관적 기준은 다시 경제적인 것과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나뉜다. 경제적 기준에는 생산 및 소유관계에서의 위치

와 소비 및 경제 수준이 포함되며, 전자는 직업 변수로 측정되고 후자는 가구소득과 자산으로 측정된다. 사회문화적 기준에는 학업성취와 문화가 포함되는데, 교육연수로 측정되는 학업성취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반면에 교육의 질이나 중산층 문화는 주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홍두승, 2005:97).

<표 2> 중산층 판별 기준

기준	차원		주요변수		최저기준
객관적	경제적	생산 · 소유관계	직업	명칭	화이트칼라(신중간계급)
				종사상의 지위	소부르주아지(구중간계급)
		소비 · 경제수준	소득	가구소득	중간소득
			자산	금융·부동산	중간 정도의 자산
	사회문화적	학업성취	교육	양(교육년수)	대학
				질(학교 명성)	(주관적 판단 필요)
		문화	'중산층 문화'		(주관적 판단 필요)
주관적	귀속의식		계층의 단계구분		중 또는 중하

출처: 홍두승(2005: 97) <표 5-2>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홍두승(2005)의 틀에 따라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 직업, 소득, 자산(부동산), 교육(연수)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은 중산층 판별에 적용된 최저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중산층으로 판별할 지는 경험적인 문제이다. 중산층의 획정을 위해 가구주의 직업적 지위, 가구소득, 주택규모, 그리고 교육 정도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각 변수별로 중산층 기준을 충족시키면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하면 0점을 부여한다(<표 2> 참조). 그런데 중산층 판별에서 가구주의 계급적 지위는 다른 변수에 비해 더 비중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홍두승, 2006: 95), 중상계급의 경우 소득이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적어도 주변적 중산층으로 분류되도록 2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중산층 점수의 합이 3점 이상이면 '핵심적 중산층'이고, 2점 이상이면 '주변적 중산층', 1점 이하이면 '비중산층'(하층)으로 개념화 하였다.[1)]

1) 계층구분에서 상층이 개념적으로 존재하나 일반적인 조사연구에서 실제 포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2) 자료와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의 아파트 및 보통 조사구(기숙사, 특수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 제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데, 중산층 판별이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만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산층 고령자는 중산층이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중산층 판별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 우선 계급적 지위는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을 중산층으로 판별하였다. 여기서 직업은 자신이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구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기준연도인 201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4,568,793원)의 약 90%와 2013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1,546,399원)의 약 2.5배의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홍두승(2005)에서 자산은 주택규모를 기준으로 자가 20평 이상, 전월세 30평 이상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자료에는 주택규모에 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산을 이용하였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 25.7=85㎡)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2억 5700만 원을 최저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은 2년제 대학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가활동은 적극적 및 소극적 여가활동의 전체 유형을 검토하기 위해 몇 개의 문항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여가문화 활동(취미활동, 여행, 영화 관람, TV 시청)의 24개 범주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는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의 인지적 여가와 신체적 여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여가활동의 사회적 여가를 측정하기 위해

해외여행, 동호회·친목단체·정치사회단체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녀들과의 접촉, 친지들과의 접촉,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등도 분석하였다.

4. 분석 및 논의

1) 중산층 고령자의 여가 인식과 여가활동

중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을 검토할 때 여가활동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Lobo, 1998; Snir and Harpaz, 2002). 일-여가의 관계는 일의 다양한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의 중요도, 일에 대한 지향, 인간관계, 자격 규범, 의무 규범 등이 일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되는데(Haworth and Veal, 2004), 여기서는 여가와 직접 관련된 일의 중요도와 경제적 지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일의 중요도(work centrality)는 개인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의미한다. 경제적 지향은 일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 수단적 가치가 차지하는 중요도이다. 반면에 내재적(intrinsic) 지향은 일과 관련된 흥미, 다양성, 자율성 등이 차지하는 중요도로 직무에 대한 헌신 및 일 중요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2] 일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일-여가 관계를 보면 중산층 고령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일보다는 여가 지향적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일/확장의 관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가 지향적 중산층 고령자일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일의 중요도를 약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2)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는 일을 매개로 형성되는 대인 관계의 중요도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중요한 기본 욕구라 할 수 있는 소속욕구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자격 규범(entitlement norm)은 일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 및 개인을 위한 사회나 조직의 책임의 중요도를 의미하고, 의무 규범(obligation norm)은 사회와 조직에 대한 개인의 노동 의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자격과 의무는 일과 관련된 적합한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경제적 지향의 측면에서 외재적 가치는 집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노동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산층 고령자의 경우도 여타 집단과 비교해서 경제적 지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분리/중립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내재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여가는 목적 그 자체 또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여가 지향적인 중산층 고령자일수록 일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동일/확장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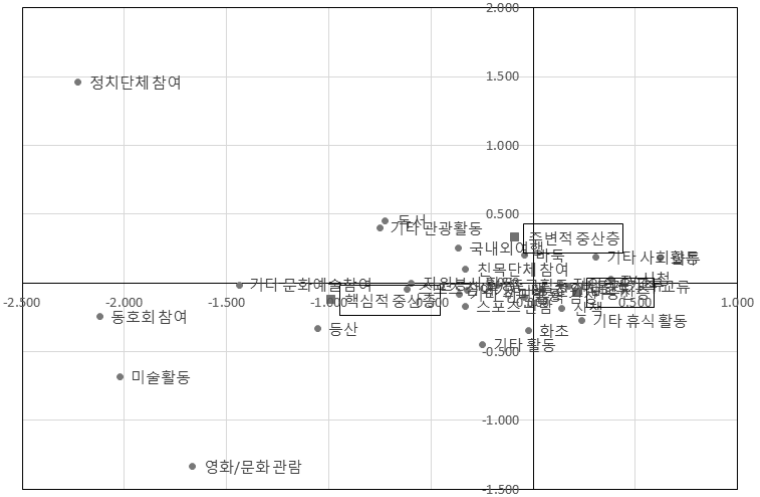
<표 3> 중산층 고령자의 계층에 따른 노동의 주된 이유

노동이유 / 계층	생계비 획득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기타	전체
핵심적 중산층	62.1	4.8	5.9	4.1	15.6	7.4	100.0
주변적 중산층	80.6	6.6	3.8	4.1	3.6	1.4	100.0
비중산층	83.7	8.4	2.3	3.0	0.7	1.8	100.0
전체	80.8	7.6	3.0	3.4	2.9	2.2	100.0

$\chi^2 = 250.599\ (p < 0.01)$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일-여가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노동의 주된 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산층 고령자의 일-여가에 대한 인식을 간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비 획득이나 용돈 마련 등과 같은 외재적 가치의 경우 비중산층에 비해 핵심적 중산층에서 덜 중요하게 간주되는 반면에 건강유지나 능력발휘와 같은 내재적 가치의 측면은 핵심적 중산층에서 더 중요한 이유로 간주된다($\chi^2 = 250.599\,.\ p < 0.01$). 여가 지향적 중산층 고령자는 일을 통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여가를 통한 내적인 만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 고령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산층 고령자의 인식과 기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적극적 여가나 진지한 여가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다.

고령자들의 계층별 여가활동 유형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여가의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는 달리 고령자들의 여가활동 유형에는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박재성, 2012; 신규수, 2012 참조). 다만 핵심적 중산층일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비중산층은 주로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층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윤인진·김상운, 2005 참조).



<그림 1> 고령자의 계층별 여가활동의 대응분석

2) 중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

노년기 사회통합은 노동참여와 포섭, 결사체 참여, 그리고 공동체 소속감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과 더불어 중산층 고령자 사회통합을 논의하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위기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경제적으로 포섭되고 정치적으로 활동적일수록 '생산적 노화' 가능하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경제적 이탈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이탈이 강제적인가 아니면 자발적인가가 중요한 변수인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탈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위기는 사회적 위기로 인한 공동체 붕괴와 여가의 사적화이다. 도시화, 이질화, 탈전통화의 영향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되고 사회통합의 약화됨으로써 여가의 사적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핵가족화됨으로써 여가가 가정 중심으로 사적화되는 것이다.

고령자들 사이에서 정치단체 참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동호회 활동보다는 기존의 친목단체나 가족, 이웃, 지인들과의 만남이 여가활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차원의 사회적 통합의 저조와 여가의 사적화 경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가의 사적화를 일반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중산층 고령자의 현실을 보기 위해 여가활동을 대분류 수준으로 통합하여 계층 간 차이를 검토하였다(<표 4> 참조). 고령자들의 경우 대체로 가족, 친인척, 이웃·지인들과의 인적 교류와 휴식활동으로서의 여가가 중요한 가운데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 사회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비중산층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86.424\,.\ p < 0.01$).

<표 4> 계층별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 계층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관광 활동	취미 오락	휴식 활동	사회 활동	자원 봉사 활동	인적 교류	전체
핵심적 중산층	0.7	4.9	7.6	10.2	15.1	18.0	5.1	38.3	100.0
주변적 중산층	0.3	2.9	6.2	8.5	20.3	15.8	3.4	42.6	100.0
비중산층	0.3	2.4	4.9	7.8	22.8	14.3	2.8	44.7	100.0
전체	0.4	2.8	5.5	8.2	21.3	15.1	3.2	43.4	100.0

$\chi^2 = 686.424\ (p < 0.01)$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 경제사회적 위기와 노년기 사회통합

사회적 차원 / 경제적 차원	통합	이탈
통합	"통합적 노화"	"고독한 노인"
이탈	"불우노인"	"독거노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중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의 문제는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 중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변적 중산층에게는 경제적 이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고령자들의 정치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미진한 상태이다. 일부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 민간단체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적인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는 미진한 편이다. 사회적 차원의 경우 가족, 친지, 이웃, 지인을 포함하는 인적인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나, 이러한 활동이 지나치게 내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여가의 사적화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 중산층 고령자의 통합적 노화

중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 및 사회적 위기라는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들어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 '독거노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는 '고독한 노인'이며,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는 '불우노인'이 된다. 고령기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은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통합되는 '통합적 노화'(inclusive ageing)라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고려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는 독거노인이나 불우노인의 문제가 더 중요하겠지만, 중산층 고령자에게 상대적

으로 더 중요한 차원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Caro, Bass and Chen, 1993).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요구되는데, 가족관계 강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산층 고령자들은 일과 여가에 대해 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혜택보다는 일을 통해 신체적 및 정신적 활동성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활동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삶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적으로 되고자 하는 바람은 공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희망 활동이 다양하다고 해서 모든 활동이 여가로 간주된다거나 모든 활동이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취미여가활동, 친목단체 활동, 종교활동, 소득활동 등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표 6> 참조). 중산층 고령자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학습활동, 정치사회단체 활동, 친목단체 활동 등에 대한 수요가 비중산층에 비해 더 높다.

중산층 고령자의 '통합적 노화'를 위해서는 특히, 재교육 수요 충족, 자원봉사 활동, 취미여가활동, 정치사회 단체 활동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와 여가활동이 사회적 통합의 주요 수단이 되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고령자들의 여가활동을 사회문

<표 6> 고령자의 계층별 희망 활동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희망 활동 / 계층	소득 활동	자원 봉사 활동	학습 활동	취미 여가 활동	종교 활동	정치 사회 단체 활동	친목 단체 활동	전체
핵심적 중산층	10.8	10.1	12.0	25.9	18.1	1.3	21.7	100.0
주변적 중산층	15.5	7.1	8.7	28.8	19.9	0.5	19.5	100.0
비중산층	14.4	7.1	8.5	29.9	20.7	0.3	19.0	100.0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화적 차원의 소속감 회복 과정과 연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한 적극적 여가와 진지한 여가활동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연관되어 있다(Punam, 2000).

5. 맺는 말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일-여가 관련 가치지향은 여가중심으로 이행하게 된다. 여가 지향적 중산층 고령자는 일의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일을 통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일과 여가를 통한 내적인 만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계층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를 보면 핵심적 중산층일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비중산층은 주로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층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의 사회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고 소속되는 과정이다. 중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 및 사회적 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노년기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은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통합되는 '통합적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의 경우 경제적 차원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주변적 중산층의 경제적 이탈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관계나 노동활동과 관련된 고령자 친화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고령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재교육 기회나 취업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불우노인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지만 중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차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

합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족 관계 강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고령자 집단 전반에서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정치적 차원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적인 사회단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공동체와 여가활동이 사회적 통합의 주요 수단이 되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여가나 진지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이 중요하다. 고령자들의 적극적 여가활동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소속감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중심의 적극적 여가활동이나 진지한 여가활동 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산층 고령자들에게는 진지한 여가의 활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지한 여가에는 본업은 아니지만 예술, 스포츠, 오락 등을 애호하는 활동으로 전문가(보상을 위한 상시 고용 직업) 및 일반인과는 구별되는 애호활동(amateurism), 수집활동, 공작활동, 비경쟁적 게임 활동(사냥, 등산, 노래모임 등), 경쟁적 게임 활동(축구, 배드민턴, 등), 문학 활동을 포함하는 취미활동, 자신 또는 타인들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이나 자조적 및 이타주의적 활동을 포함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핵심적 중산층 고령자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학습활동, 정치사회단체 활동 등에 대한 수요가 비중산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도 고령자들을 위한 적극적 여가나 진지한 여가를 위한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여가나 진지한 여가의 추구는 여가자본(leisure capital)을 필요로 한다. 여가자본은 여가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으로 정의되는데(Bourdieu, 1985), 중산층 고령자들은 고용상태나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산, 사회관계, 회원의 형태로 여가자본을 축적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의 여가자본 활용

은 노동시장 이탈의 영향을 받는데 이탈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여가 활동 참여에 애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bo, 1997; Krantz-Kent and Stewart, 2007).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한 진지한 여가나 적극적 여가의 기회확대는 그들의 성공적인 단계적 은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기는 삶의 의미와 관련된 새로운 생각과 선택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또한 현재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핵심적 중산층 고령자들의 희망 활동에서 드러나듯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나 진지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높아진다. 사회적으로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 대비는 강조되어 왔지만,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대한 논의나 대비는 부족한 편이다. 새로운 사회참여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해 중산층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현주. 2014. “고령자의 단계적 은퇴 정책에 관한 유럽의 경험.” 『사회법연구』 24: 89-104.

김보현・안영선. 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5(1): 141-160.

나항진. 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학연구』 18: 131-163.

남은영・최유정. 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57-84.

박선권. 2013.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사회

와 정책연구』 23: 172-200.

박재성. 201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가활동 불평등의 관계." 『공공사회연구』 4: 52-80.

백종욱・김성오・김미양. 2010.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임상사회사업연구』 7(1): 37-58.

신광영. 2006.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해법인가?"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중산층 포럼 1차 발표자료집). 한국사회학회. pp. 19-28.

신규수. 2012.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사회계층에 따른 여가사용의 불평등." <한국노인복지학회 발표논문집>(한국노인복지학회). pp. 2-14.

윤인진・김상운. 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13(2): 162-202.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17-346.

전영갑・이재근. 2006.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3(3): 243-272.

조동기. 2009.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통계청. 2013.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5.10.20. 접속).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홍두승・김병조. 2006. "한국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중산층 포럼 1차 발표자료집). 한국사회학회. pp. 3-18.

AARP. 2006. "Phased Retirement and Flexible Retirement Arrangements: Strategies for Retaining Skilled Workers."

<http://assets.aarp.org/www.aarp.org_/articles/money/employers/phased_retirement.pdf>.

Bourdieu, P. 1985.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Theory and Society* 14(6): 723-744.

Butler, R. N. 2010. *The Longevity Prescription-The 8 Proven Keys to a Long, Healthy Life*. New York: Avery.

Butler, R. N & Gleason, H. P. 1985. *Productive Ageing: Enhancing Vitality in Later Life*. New York: Springer.

Caro, F. G., Bass, S. A. & Y. Chen. 1993. Introduction: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In Bass, S. A, Caro, F. G. and Y. Chen. (eds.)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pp.3-26.

Giele, J. Z & Elder, G. H. (eds.). 1998. *Methods of Life Course Research :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Haworth, J. T & Veal, A. J. (eds.). 2004. *Work and Leisure*. London: Routledge.

Krantz-Kent, R & Stewart, J. 2007. "How Do Older Americans Spend Their Time?" *Monthly Labor Review*, May: 9-29.

Lobo, Francis. 1998.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 Changing Work-Leisure Relationship in the late 1990s."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5(3): 147-154.

Miller, Lynn E & Weis, Rhichard M. 1982. "The Work-Leisure Relationship: Evidence for the Compensatory Hypothesis". *Human Relations* 35(9): 763-771.

Parker, Stanley. 1971. *The Future of Leisure and Work*. New York: Praeser Publishers.

Parker, Stanley. 1983. *Leisure and Work*. London: Allen and Unwin.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Ravanera, Zenaida R & Fernando, Rajulton. 2001. "Integration at Late Life: Inclusion, Participation, and Belonging among the Elderly." *PSC Discussion Papers Series* 15(16): Article 1. <http://ir.lib.uwo.ca/pscpapers/vol15/iss16/1>.

Roadburg, Alan. 1981. "Perceptions of Work and Leisure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1 (2): 142-145.

Roberts, Keneth. 1997 "Why Old Questions Are the Right Response to New Challenges: The Sociology of Leisure in the 1990s." *Society and Leisure* 20(2): 369-381.

Snir, Raphael & Itzhak Harpaz. 2002. "Work-Leisure Relations: Leisure Orientat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nd Quarter.

Stebbins, Robert A.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cGill-Queen's Press.

Wilensky, H. L. 1960. "Work, Careers and Social Integr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2(4): 543-6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HO.

조동기는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등을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인권체제와 이주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현대 정보사회이론』(역서), 『기로에 선 중산층』(공저) 등의 논문과 저역서가 있다.

[2015. 11. 25. 접수; 2015. 12. 15. 수정; 2015. 12. 16. 채택]